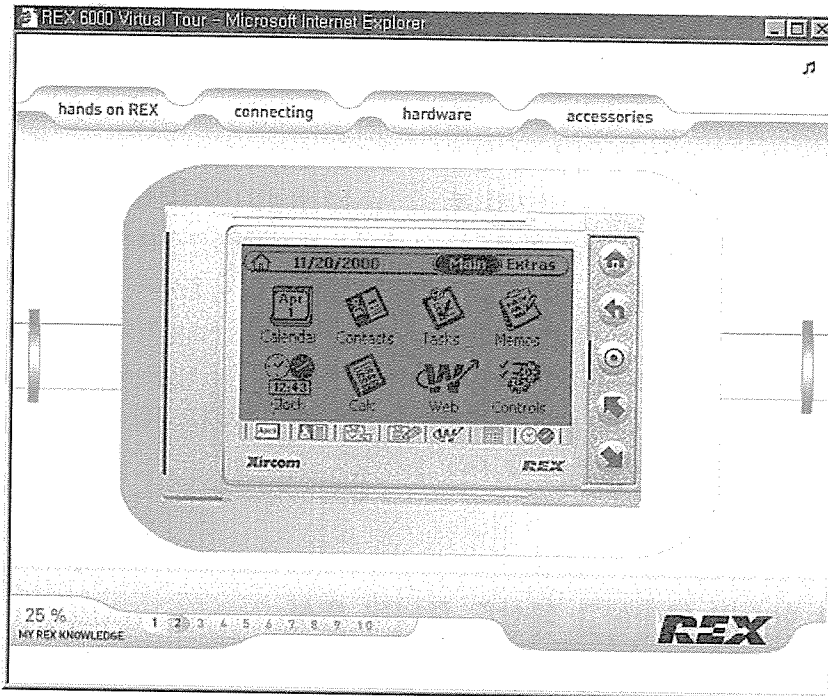


이동성 강화된 신용 카드 크기의 PDA 등장

- 인터넷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PCMCIA TypeII 규격으로 제작돼 노트북 이용자는 거추장스런 케이블없이 곧바로 PC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물론 별도로 제공되는 핫싱크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USB버스를 이용한 크래들이 제공된다. 본체에 내장된 2MB의 메모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에는 무리지만, 수천개의 연락처와 메모를 기록할 수 있어 간편한 이동성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또 사용자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알람 기능도 포함됐다.

저렴은 이 제품의 출시와 동시에 인터넷 웹사이트(www.rex.net)를 통해 주식정보, 뉴스, 스포츠 소식과 날씨 등의 인터넷 정보를 PDA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갑이나 셔츠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신용카드 크기의 개인정보단말기(PDA)가 출시됐다. 무선통신 개발업체 저콤(Xircom)은 6일 여지껏 나온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크기에 달력, 주소록, 일정관리, 메모장 등 PDA의 전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렉스 6000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240×120 해상도의 터치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이 제공돼 손쉽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이나 다른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PIMS)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작은 크기의 화면이 불만인 사용자는 PC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PDA로 이동

국내 중소기업 IT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추진

중소기업청은 16일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e-Biz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까지 약 10만명의 전문인력

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9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인력 실태조사를 실

시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비해, 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곤란, 도입자금의 부족, 정보화 교육 부재 등이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인력은 업체당 1~2명에 불과한 반면, 적정 소요인력은 2~4명으로 파악돼,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의 원활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약 9만~10만여명의 정보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 홈페이지 제작(12.9%), 인터넷과정(12.7%), 전자상거래(11.5%), 사무자동화(10.8%), ERP(10.5%)

등 e-Biz추진을 위한 기초분야에서 응용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e-Biz 전문인력 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만명의 인력양성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에 대학 및 정보화 유관기관 약 40개를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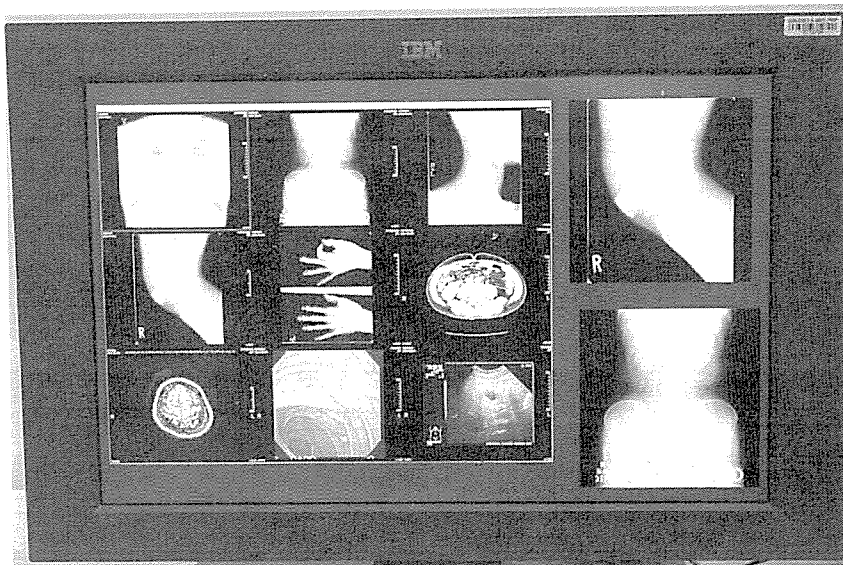
또한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공단에 인접한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이

버 e-Biz기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중소기업 e-Biz 인력양성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 및 민간 교육기관 등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 신설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Biz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에 금년보다 1,132%증액된 285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IBM, 9백만 화소의 세계최고 해상도 모니터 출시

- 과학, 공학, 출판, 의료 등 전문분야에 활용



세계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출시됐다. 인치당 200

화소, 22인치 화면전체에 9백만 이상의 화소를 표시하는 이 모니터는 지

금까지 개발된 디스플레이보다 12배나 선명한 해상도를 자랑하며 HDTV와 비교해도 4.5배 이상의 깨끗한 화상을 구현한다.

이 기술은 원격진료, 일기예보, 출판 및 그래픽 디자인, 제품개발, 위성을 이용한 지도제작 등과 같이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전문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 등의 컴퓨팅 장비에도 적용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의 비디오와 디지털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이 제품은 미에너지관리국 소속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핵무기 동작 및 노후화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리버모어 연구소의 CIO이자 부국장인 쿠퍼박사는 “핵무기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상실험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와 고난도의 컴퓨터 코드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 데이터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IBM의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는 해상도라면 가능하

다”고 말했다. 대용량의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출력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적합하다.

이 경우 의료부문에서는 재래식의 필름 X-ray를 대체하고 일기예보시에는 정확한 사진판독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디스플레이 제품기술은 1995년부터 뉴욕의 요크타운 하이츠와 일본의 야마토에 위치한 IBM 연구소에서 연구됐다. 그 결과

새로 개발된 활성 매트릭스(active matrix) 액정 디스플레이는 몰리브덴과 텅스텐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소에서는 구리를 이용한 실험용 디스플레이 제작에도 성공해 향후 선보일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구리를 이용할 계획이다. 알루미늄과 구리를 활용하면 제작비 절감과 해상도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글.com 형식의 한글도메인 등록 개시

지난 10일 미국의 도메인등록기관 관리기구인 베리사인은 전세계 20여 개 도메인 관련업체를 통해 ‘한글.com’ 형태의 한글도메인을 포함해 다국어도메인 등록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넷피아, 한강, 가비아 등 3개 업체가 다국어도메인 등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한글.com 방식의 도메인 등록을 받고 있다. NSI 역시 후이즈 등 국내 9개 업체와 협력을 맺고 한글 도메인 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등록된 한글주소는 한 달 후부터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한글도메인은 영어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체의 난립과 제각각인 서비스 형식으로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에 등록이 시작된 한글.com 형식의 한글도메인은 미국에서 관리하는 최상위 도메인 .com에 한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한글.com으로 등록된 주소는 영문 ‘bq’로 시작하는 주소로 바뀌어 인식된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내년초 한글.kr 형식의 계층형 한글도메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닉 등 16개 업체가 구성한 한글인터넷센터 컨소시엄을 최종 등록대행자로 선정했다.

반면에 한글 키워드를 이용해 영문으로 된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키워드 방식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입력란에 해당업체의 키워드를 한글로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문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키워드 입력방식의 선두는 넷피아 등의 한글도메인정보센터로 국내 도메인 중 60%가 한글도메인정보센터망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닉 등의 한글인터넷센터는 11월부터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의 리얼네임즈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12월부터 이 사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여타 키워드 방식의 입력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⑤7

李 懸 (동아 사이언스 기자)